제6강 김훈 「화장」

(1교시)

김훈 「화장」
《2004 이상문학상 수상작》

1. 작가 연보
1948년 서울 출생. 고려대 정외과 및 영문과 중퇴. 1973~1989년까지 한국일보 기자 생활. 1990년 이후 2년 동안 주요경력으로 <시사저널> 편집국장, <국민일보> 부국장 및 <한국일보>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고, 현재 전업 작가로 활동 중. 동인문학상, 이상문학상 수상.

장편소설 『칼의 노래』(2001), 『현의 노래』(2004) 등
산문집 『아들아 다시는 평발을 내밀지 마라』(2002), 『너는 어느 쪽 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해』(2003), 『밥벌이의 지겨움』등

2. 줄거리
2년 동안 뇌종양을 앓던 아내가 죽었다. 화장품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는 '나'는 묵묵히 아내의 장례 일정을 진행한다. 한 편으로는 전립선염으로 고통스러워하며, 한 편으로는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자신의 사랑을 생각하며, 또 한 편으로는 회사의 일을 수행하며. 죽어가는 아내의 육체와 생명력 넘치는 추은주의 육체. '나'는 무거움과 가벼움 사이에서 번뇌하다가, 결국 가벼워지기로 마음을 먹는다.

3. 플롯구조
현재-회상-현재-회상-현재

4. 시점
1인칭 주인공 시점

5. 문체의 특징
사실적이며 치밀하고 현장감 넘치는 정교한 문체

6. 소설의 중요한 구도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▲ <대립> 구도
- 소멸과 생성
- 뇌세포와 뇌종양
- 산 자(딸)와 죽은 자(아내)
- 휴대폰과 죽은 휴대폰
- 건강한 화자와 병든 화자
- 밥과 똥

(2교시)

▲ <대립> 구도
- 무거움과 가벼움
- 산 개와 죽은 개
* 개(보리)를 안락사 시키는 에피소드: 불교적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. (지금의 고단한 몸뚱이를 버리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)
- 죽어가는 아내의 몸과 추은주의 살아있는 아름다운 몸

소 멸	소 생
죽어가는 아내의 육체 보리(안락사)	추은주의 생명력 넘치는 육체 아이의 생명력

무거움	가벼움
전립선염 고통 받는 육체	육체의 이탈 (아내의죽음/추은주사표/보리의안락사)

7. 묘사력
- 당신이 잠드는 동안 당신의 몸속에서 작동하고 있을 허파와 심장과 장기들을 생각했다. 피의 온도와 당신의 체액에 젖는 살들의 질감.
- 몸은 블라우스와 스커트 속에서 완연했고 (…) 푸른 정맥이 드러났습니다.
- 죽은 사람의 얼굴표정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의 얼굴위에서 살아서 어른거리고 있었다.
- 두 번의 수술로 중추신경까지 마비된 아내의 몸은 검불처럼 가벼웠고 마른 뼈 위로 가죽이 늘어져서 겉돌았다. 습기가 빠진 피부가 버스럭 거렸다. 사지를 늘어뜨리고 앉은 아내의 두 다리는 해부학 교실에 걸린 뼈처럼, 그야말로 뼈뿐이었다. 늘어진 피부에 검버섯이 피어 있다.
- 휴대폰은 꼬르륵 꼬르륵… 소리를 내면서 죽었다. 휴대폰이 죽는 소리는 사소했다. 맥박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이 0으로 떨어지면서 아내가 숨을 거둘 때 심전도계기판에서 그런 하찮은 소리가 났었다.
- 오줌이 빠져나간 방광이 빈 들판처럼 느껴졌다.
- 아내의 똥은 창자와 음식물 사이의 사투의 고통이 응축된 사리처럼 보였다.
- 엉덩이살이 모두 말라버려서 골반 뼈 위로 헐렁한 피부가 늘어져 매트리스 위에서 접혔다. 간병인이 사타구니의 물기를 수건으로 닦을 때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들뜬 음모가 부스러지듯이 빠져나왔다. 간병인은 수건을 욕조바닥에 탁탁 털어냈다.

* 현장감이 넘치는 묘사력.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치밀한 사실감.

8. 주제
순환 영속되는 생명에의 외경.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경외심.

9. 제목
'화장'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. 죽은 자의 몸을 소각시키는 화장과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화장. 소멸을 뜻하는 화장과 싱싱함을 상기시키는 화장의 두 가지 의도는 작가가 주제에서 말했듯이 '무거움'과 '가벼움' 또는 '소멸'과 '생성'을 구체화 시키는 제목이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